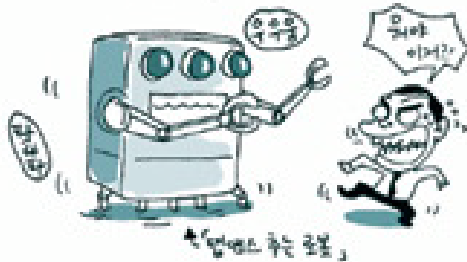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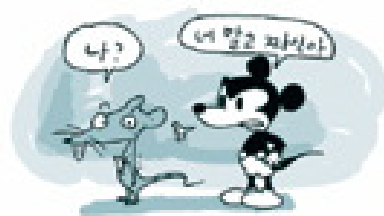
아무도 몰랐던 미래 발명이야기

「미키마우스」 권.1립 김민재

흔히들 발명하면 기가악한 제품이나
요상한 기계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들이 어렸을때부터 사랑스러웠던(??)
요 주씨에도 바른 발명품이란 사실!!



저작권과 의상권으로 보호를 받기
쉬운 미키마우스는 워너브라더스의 생애 중
가장 손꼽히는 발명으로 불수 있는데...
이 무렵 아마 독자분들은 발명이 정리에
관해 심히 혼란스러워 하실지도 모르겠다.

초기에 월트브라더는 가난한 만화가였다.
그는 정리를 통과한 만화영화를 만들었다.
누룩의 배급업자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기 때문에 무일푼이 되고 말았다.



그러면 어느날...



그의 독특한 취향으로 취향은 곧 애환술이 되었고
권마리의 쥐에게는 '물리모어' 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떠질족 디즈니는 아내와 함께
기차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작품구상을
제회했다.



떠돌이족 디즈니는 곧 캐릭터 작업에
착수하였고 이름은 '물레발'이어서
'미키마우스'로 바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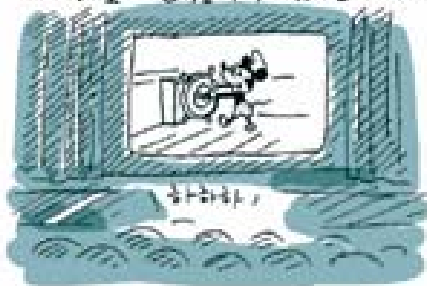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미국내 언론들은
디즈니와 미키마우스에게 극찬을 했고
미키마우스는 곧 세계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었다.



이때 디즈니의 뇌회로 소모하는
생각이 있었으며!



디즈니는 미키마우스를 만들후
동료들과 함께 만화영화를 제작하였고
1928년 11월 18일 「증기선 윌리, 라는
제목으로 관객들에게 첫선을 보였다.



미키마우스로 성공한 디즈니는 후에
디즈니랜드라는 꿈의 도시를 만들었고
'만화영화의 황제'라는 칭호도 얻게되었다.

